

ortho type이 35 %로 아직은 regular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.

5) 흉부촬영시 환자 피부 입사선량을 측정하 결과 10~20 mR이 37.3 %로 가장 많았으나 40 mR이상도 10.7 %로 나타났다.

결론 :

120개 의료시설의 흉부 촬영 system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장치의 고용량과, 희토류 증감지의 사용, 고관전압 촬영 등에 따라 노광 조건이 감소되어 환자의 피폭선량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.

<22>

객혈환자에서 동맥색전술의 방법 및 효과

김승년* · 이길원 · 박봉림
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
원주기독병원 진단방사선과

목적 :

최근 객혈환자에서 수술전에 지혈목적이거나, 폐기능 저하 등의 이유로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차선적 치료로 기관지동맥 등의 동맥색전술이 많이 이용되고 있어 그 시술방법 및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.

대상 및 방법 :

1993년 9월부터 1994년 8월까지 객혈환자 51명을 대상으로 62예의 동맥색전술을 시행하여 102개의 동맥을 색전하였고 색전술의 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.

성별분포는 남자 36명, 여자 15명이었으며, 연령분포는 19세에서 87세까지였다.

색전술의 방법은 일반적인 혈관조영술 후 출혈혈관에 색전물을 주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영상은 OPTIMUS M 200 SYSTEM(Philips)으로 DSA(4 frame/sec)와 cineangiography(60 frame/sec)를 얻었다. 색전술 대상 혈관은 혈관조영술 소견으로 결정하였으며, 처음 동맥색전술 후 재출혈이 없는 경우를 초기 지

혈에 성공한 경우로 판정하였다.

결과 :

1) 객혈의 원인질환으로는 폐결핵이 전체 51명 중 32명(61.5 %)으로 가장 많았다.

2) 동맥색전술을 시행한 51명중 7명(13.7 %)에서 재출혈이 있었고, 62예의 동맥색전술 중 11예(17.7 %)에서 재출혈이 관찰되었다.

3) 동맥색전술을 시행한 102개의 혈관중 기관지동맥이 65개(63.7 %), 기관지동맥의 체측부동맥이 37개(36.3 %)였으며, 재출혈시 기관지동맥의 체측부동맥으로부터 많은 혈관 공급을 받았다.

4) 동맥색전술의 초기 지혈효과는 51명 중 재출혈이 있었던 7명을 제외한 44명으로 86.3 %였다.

결론 :

객혈환자에 있어 기관지동맥 및 체측 부동맥 등의 동맥색전술은 유용하고 안전한 시술이라고 생각된다. 동맥색전술 후 체측 부동맥에서 재출혈의 빈도가 높았으며 재출혈을 줄이기 위해 폐결핵의 치료와 함께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인 동맥색전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.

<23>

비루관 풍선 확장술과 스텐트 삽입술에 이용되는 갈고리(Hook)의 유용성

김태형* · 박상수 · 김재동 · 송호영
아산재단 아산생명과학 연구소
의료재료연구과

목적 :

비루관 풍선 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시 안내 철사를 코 밖으로 걸어내고자 고안된 Hook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한다.

대상 및 방법 :

Hook는 머리와 몸체 부분으로 구분 제작하였다. 머리부분은 0.7 mm 두께의 스테인레스 철사를 물음표 모양이 되게 제작하였으며, 몸